



사모펀드의 ESG



- 01 ESG 이슈 포커스
- 02 ESG ETF: 유형별 자금 동향
- 03 Global ESG: Fund/ETF 성과 분석
- 04 ESG 발행시장 동향
- 05 ESG 벤치마크 성과 & 자금 동향





엇갈리는 미국의 기후공시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3월 공개한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초안을 지난해 3월 확정했다. 의무화 기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은 기후 공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SEC의 최종안의 글로벌 3대 공시 기준들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DF)에서 마련한 기후관련 공시 권고안을 바탕으로 4가지 핵심 항목(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측면에서 기업의 기후위험 대응을 공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SEC의 기후공시는 기업 공개 초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작용했던 Scope 3 배출량 공시가 확정안에서 최종 제외되고, 의무 대상 기업도 전체 상장기업에서 대기업 우선 적용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기후공시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가운데 가장 완화된 의무 공시 내용으로 확정됐다.

또한 SEC는 기후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SEC가 2024년 3월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25개 주 정부와 미국상공회의소 등 9개 단체들은 SEC가 권한을 넘어섰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제8연방항소법원으로 통합됐고, SEC는 규정 집행을 잠정 중단했었다. SEC는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일관되며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규정의 정당성을 옹호한 바 있다. 그 사이 기후공시 의무화를 이끌던 Gary Gensler 전 SEC의장이 사임하였고, 지난달 SEC는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이슈를 다룰 법적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SEC는 기존 공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Mark Uyeda SEC대행은 "현행 규정으로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기후 위험은 이미 공시가 가능하다"며 "새 규정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공시 의무화가 SEC의 권한에 속하는지도 쟁점으로 올라섰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법은 법적 문제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기후 데이터 책임법(SB 253)과 기후 관련 금융 위험법(SB 261)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큰 상황이다. 미국의 방향성은 글로벌 전반의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이슈이다.



사모펀드의 ESG

최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등에 관여되면서, 사모펀드의 책임투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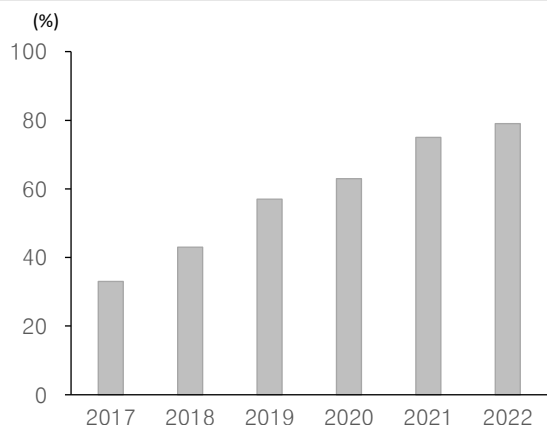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ESG 관련 기준 적용은 상법 적용 가능성과 대체투자 자산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도입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시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향후 수익의 질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반영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는 국민연금은 4-5월 안에 국내 사모투자 위탁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으로 나와있다.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을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대체투자 분야에도 ESG 원칙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하게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투자 과정 중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반영된 경우가 많다. 모닝스타가 투자자산의 ESG 반영 비중을 조사하였는데, 50% 이상의 투자자산에 ESG를 고려한다는 비중이 2022년 30%에서 2023년 33%로 증가하였다. 전통자산에서 대체자산으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ESG 중에서 기후 리스크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는 기관투자자도 2022년 80%에 이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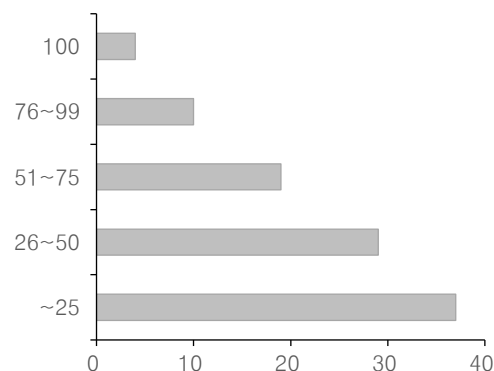
투자 프로세스가 선진화와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 증가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 환경이 되었다. 이제는 사모펀드도 투자 결정 시, 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예전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기후 리스크 관련 정보 제공하는 기관투자자 비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를 고려하는 투자자산의 비중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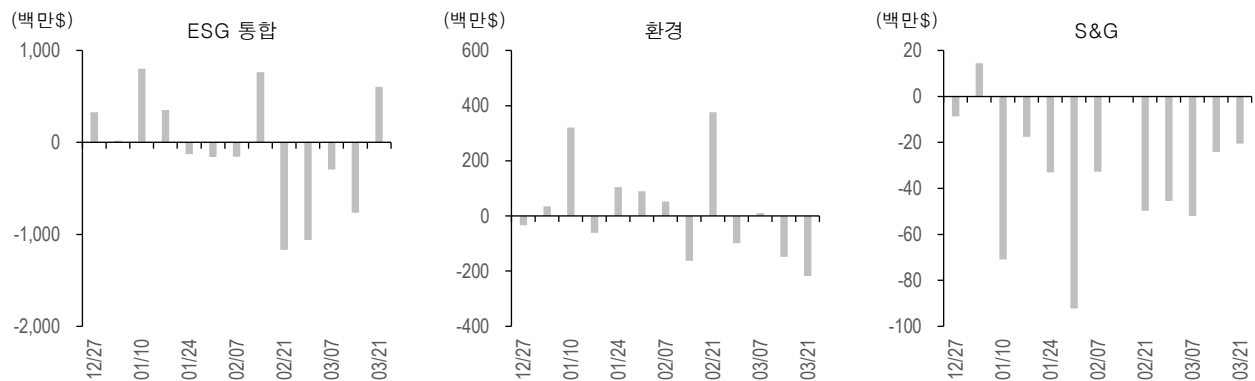


Category 1 유형별 자금 동향

| Category 1 | AUM | 주간 순유출입 | 4주 | 52주 | YTD |
|---------------|-----------|---------|----------|----------|----------|
| ESG 통합 | 301,483.4 | 603.2 | -1,516.9 | 5,370.4 | -1,190.4 |
| 환경 | 35,835.3 | -217.6 | -453.9 | -2,289.3 | 301.2 |
| S&G (사회&지배구조) | 8,430.8 | -20.4 | -142.1 | -827.6 | -423.6 |
| 합계 | 345,749.5 | 365.2 | -2,112.9 | 2,253.4 | -1,312.8 |

주: 2025.03.21 기준 / 단위: 백만\$

Category 1 주간 유출입 동향



유형별 ETF 자금 동향 Comment

낙폭과대, 저가 매수 성격의 자금 출현

- 선진국 증시(MSCI World Index 기준)는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되며 2월 중순 고점 이후 4주간 약 -8.2% 하락. 해당 기간 ESG 통합 카테고리는 총 -\$32.9억의 순유출을 기록
- 이후 낙폭과대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한 주간(3/17~3/21) ESG 선진국 카테고리 중심의 순유입이 발생 (+\$6.0억)
- S&G 카테고리는 증시 등락에 따른 저가 매수 성격의 자금 흐름과 무관하게 순유출이 지속. 약 11주간 순유출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4.4억 순유출을 기록
- 환경 카테고리 또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지속. 4주 기준 약 -\$4.5억 달러 순유출이 확인되었으며 ESG 통합 테마의 순유입 전환이 나타난 주간 약 -\$2.2억 순유출을 기록
-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4/2일 이전 관세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시는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 ESG 통합 카테고리의 자금 흐름은 증시 등락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S&G와 ESG 환경 카테고리는 순유출세가 지속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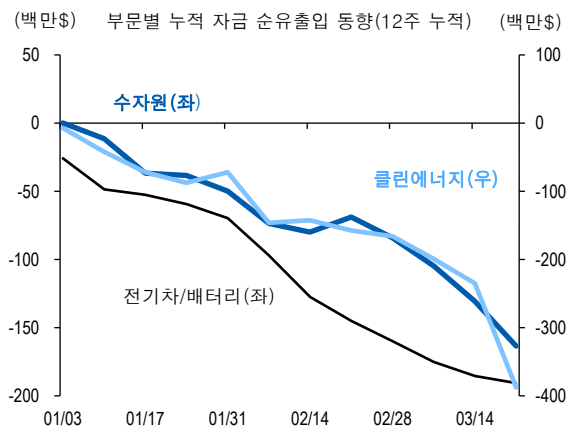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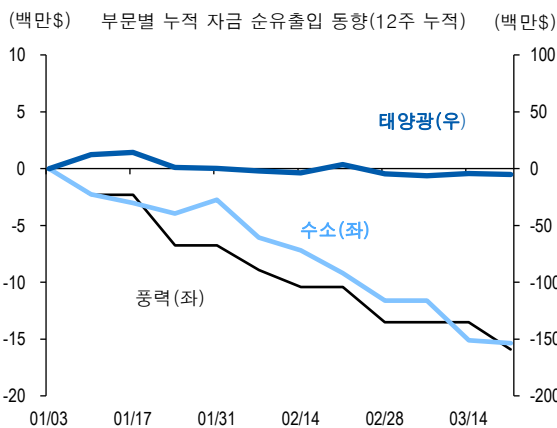


Category 2 유형별 자금 동향

| Category 1 | Category 2 | AUM | 1주 | 4주 | 52주 | YTD |
|------------|------------|-----------|--------|----------|----------|----------|
| ESG 통합 | 전세계 ESG | 11,118.7 | -2.5 | 80.3 | 358.2 | 140.9 |
| | 선진국 ESG | 257,464.0 | 658.0 | -1,773.5 | 4,904.4 | -1,574.2 |
| | 신흥국 ESG | 32,900.6 | -52.3 | 176.2 | 107.8 | 242.8 |
| S&G | 사회적 기준 | 8,430.8 | -20.4 | -142.1 | -827.6 | -423.6 |
| 환경 | 클린에너지 | 6,664.9 | -152.6 | -230.3 | -1,210.3 | -387.6 |
| | 수자원 | 9,484.4 | -32.7 | -94.5 | -154.8 | -163.4 |
| | 전기차/배터리 | 1,143.8 | -5.1 | -45.4 | -717.3 | -190.5 |
| | 수소 | 465.4 | -0.3 | -6.2 | -67.7 | -15.4 |
| | 기타환경 | 17,139.3 | -23.7 | -63.0 | 104.0 | 1,079.2 |
| | 태양광 | 801.3 | -0.9 | -9.0 | -186.8 | -5.2 |
| | 풍력 | 136.3 | -2.4 | -5.5 | -56.4 | -15.9 |

주: 2025.03.21 기준 / 단위: 백만\$

Category 2 누적 순유출입 동향



유형별 ETF 자금 동향 Comment

선진국 ESG 카테고리 외 모든 하위 카테고리 순유출 기록

- 3/17~3/21 한 주간 선진국 ESG 카테고리에 +\$6.6억 순유입 제외 모든 카테고리에서 순유출이 확인
- 선진국 중시 하락세가 지속된 기간 약 +\$3.3억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반등이 나타난 기간 재차 순유출 전환(-\$5,230만)
- 기타환경 카테고리는 ESG 환경 하위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YTD 누적 기준 순유입을 기록. 다만, 3월 들어 순유출 전환되며 ESG 환경 카테고리 전반의 순유출세가 가중되는 상황



순유입 Best 5 : 선진국 ESG 카테고리 중심의 자금 유입

| Best5 | 유형 | 지역 | 펀드/ETF명 | 총자산 | 1M | 3M | YTD |
|-------|---------|-------|--|---------|-------|-------|-------|
| 1 | 선진국 ESG | 아일랜드 | iShares MSCI World ESG Enh USD Dist | 0.11 | 347.5 | 442.0 | 442.0 |
| 2 | 기타환경 | 미국 | iShares Paris-Aligned Climate MSCI USA | 2,009.8 | 203.4 | 187.9 | 191.3 |
| 3 | 선진국 ESG | 룩셈부르크 | UBS Fund Sol - EUR STOXX 50 ESG UCITS | 1,735.8 | 202.0 | 439.8 | 439.8 |
| 4 | 신흥국 ESG | 아일랜드 | iShares MSCI EM IMI ESG Screened UCITS | 3,851.4 | 186.0 | 331.5 | 331.5 |
| 5 | 선진국 ESG | 일본 | Global X Japan Global Leaders | 654.2 | 120.2 | 155.2 | 118.2 |

순유출 Worst 5 : S&G 및 ESG 환경 카테고리의 자금 유출 지속

| Best5 | 유형 | 지역 | 펀드/ETF명 | 총자산 | 1M | 3M | YTD |
|-------|---------|------|-------------------------------------|----------|--------|--------|--------|
| 1 | 선진국 ESG | 아일랜드 | Xtrackers MSCI USA ESG UCITS | 7,754.4 | -684.2 | -844.7 | -723.0 |
| 2 | 선진국 ESG | 미국 | iShares ESG Aware MSCI USA | 12,966.8 | -260.1 | 375.1 | 388.3 |
| 3 | 선진국 ESG | 스위스 | UBS ETF CH - SPI ESG | 1,791.3 | -225.9 | 124.6 | 122.5 |
| 4 | 사회적 기준 | 미국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 4,294.2 | -95.5 | -224.7 | -224.7 |
| 5 | 클린에너지 | 미국 | First Trust NASDAQ Cln Edge StGdlfs | 2,094.1 | -78.7 | 74.9 | 80.9 |

주: 2025.03.21 기준 / 단위: 백만\$

수익률 Best 5 : 글로벌 풍력 및 클린에너지 테마 ETF는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

| Best5 | 유형 | 지역 | 펀드/ETF명 | 총자산 | 1M | 3M | YTD |
|-------|---------|------|--|---------|-----|------|------|
| 1 | 선진국 ESG | 독일 | iShares DAX® ESG (DE) | 110.2 | 5.8 | 17.8 | 17.6 |
| 2 | 선진국 ESG | 아일랜드 | iShares MSCI Japan SRI EURH | 48.5 | 5.3 | 7.4 | 4.7 |
| 3 | 풍력 | 미국 |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 136.3 | 5.3 | 5.3 | 5.7 |
| 4 | 선진국 ESG | 네덜란드 | VanEck Morningstar DM Div. Leaders UCITS | 2,032.2 | 5.2 | 16.2 | 15.3 |
| 5 | 클린에너지 | 미국 | iShares Global Clean Energy | 1,344.3 | 3.2 | 1.7 | 1.6 |

수익률 Worst 5 : 전기차/배터리, 미국 클린에너지 테마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선별적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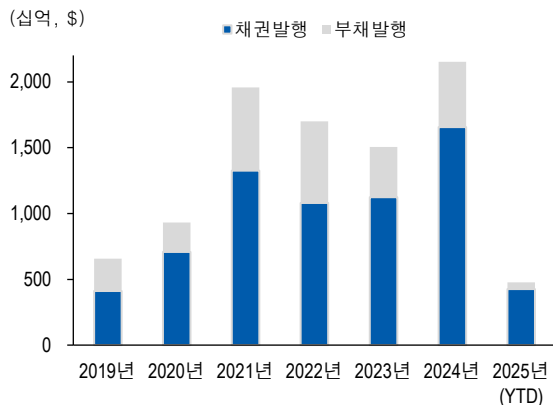
| Best5 | 유형 | 지역 | 펀드/ETF명 | 총자산 | 1M | 3M | YTD |
|-------|---------|-------|---|-------|-------|-------|-------|
| 1 | 전기차/배터리 | 룩셈부르크 | Lyxor MSCI Future Mob. ESG Filt. DR UCITS | 200.1 | -10.5 | -8.7 | -9.2 |
| 2 | 클린에너지 | 미국 | First Trust NASDAQ Cln Edge Green Energy | 418.8 | -9.7 | -14.0 | -15.1 |
| 3 | 선진국 ESG | 아일랜드 | CSIF MSCI USA Sm Cap ESG Lead. BI UCITS | 532.5 | -8.7 | -7.4 | -7.9 |
| 4 | 수소 | 미국 | Global X Hydrogen | 29.1 | -8.6 | -22.3 | -19.7 |
| 5 | 전세계 ESG | 룩셈부르크 | Amundi MSCI Digital Eco& Meta ESG Scrn | 152.6 | -8.5 | -3.0 | -2.7 |

주: 2025.03.21 기준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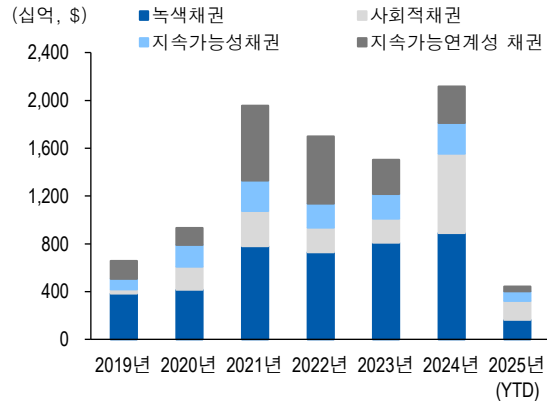


Passive / ETF Analyst 고경범
02-3770-3625 / gyeongbeom.ko@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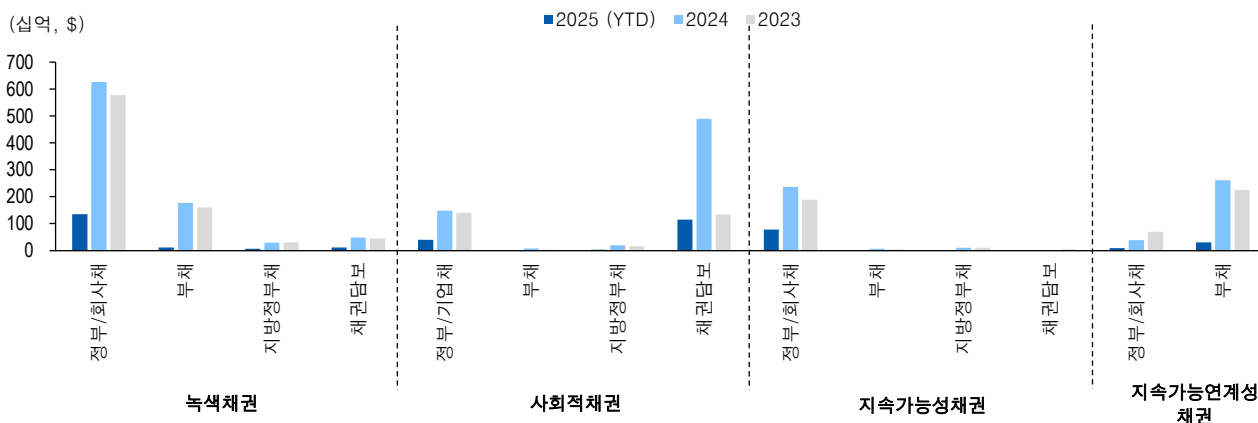
Asset Class 기준: ESG 채권 \$4,272억, 부채 \$491억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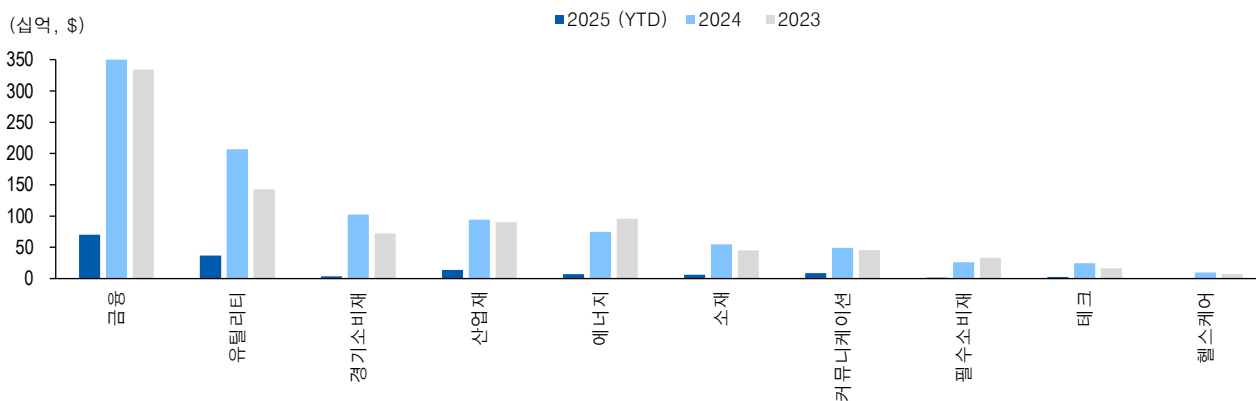
Sustainable 기준: YTD 기준 지난해 발행량의 약 20.9% 달성



Security 기준: 3월 총 \$990억 발행, YTD 기준 녹색채권(Green Bond)이 가장 많은 발행량(\$1,639억)을 기록



Sector 기준: YTD 기준 금융(\$700억), 유틸리티(\$372억) 섹터가 가장 많은 발행량을 기록. 24년 발행량의 각 19.8%, 18.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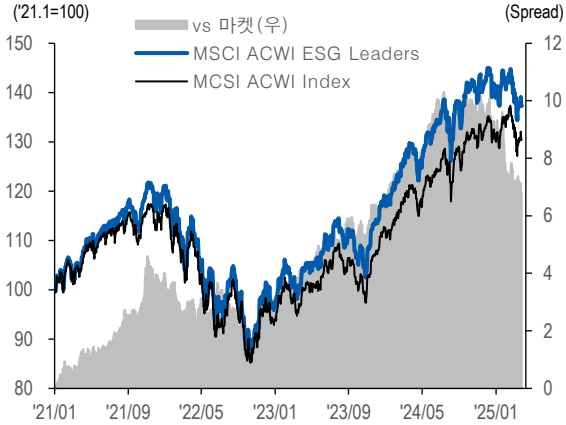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YTD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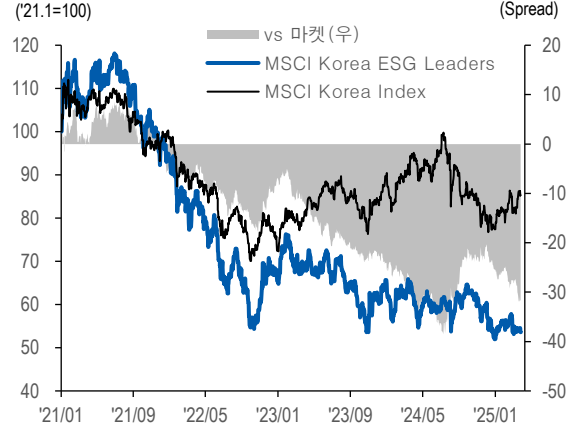
Passive / ETF Analyst 고경범
02-3770-3625 / gyeongbeom.ko@yuantakorea.com

ACWI ESG 지수의 아웃퍼폼 스프레드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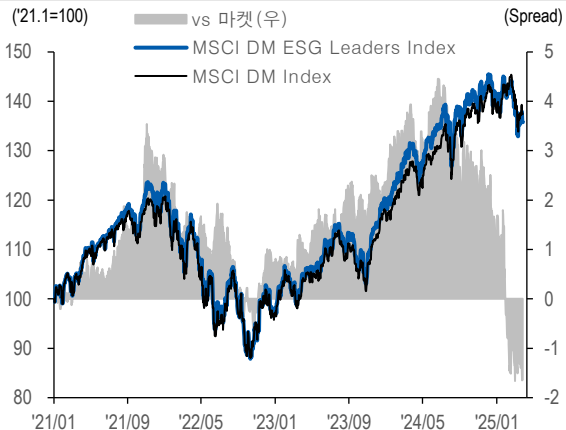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또한 한달 간 ESG 지수는 마켓지수를 언더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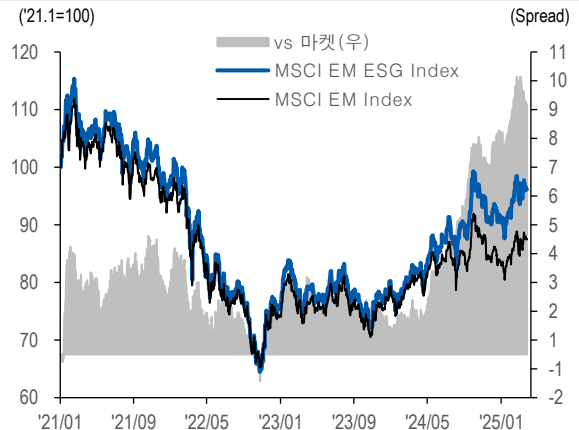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ESG 지수는 마켓 지수 대비 언더퍼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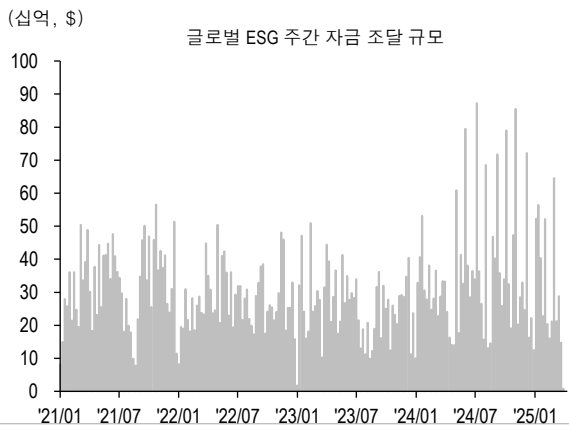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ESG 지수는 상승 속 마켓 지수를 언더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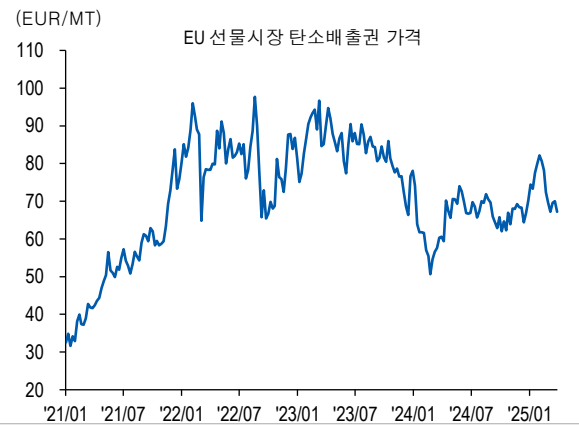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자금 조달 시장, 147억 달러 조달(3월 3주)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70.01 유로(3월 3주)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Environment)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ance)와 관련된 리포트로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공정거래, 주주총회 안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제 및 내용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